

# '제값받는 농업 실현' 한마음 한뜻 모아

### 임실군 농업인학습단체 1000여명 모여 모범활동 우수회원 26명 표창 전달

농업기술발전과 농업인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임실군 농업인학습단체가 제값 받는 농업 실현을 다짐하며 한자리에 모였다.

7일 임실군 농업인 학습단체는 '하나돼, 모두가 행복한 임실'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한마음 대회를 가졌다.

임실군민체육회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농촌 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원 등 농업인학습단체 회원 약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식전행사로 오수면 줄타(난타)공연과 한영석 경춘교육 연구소장의 '농업인이여~변화의 중심에 서라'라는 주제로 4차 산업시대 우리 농업인이 변화야 농촌이 변하고 세상이 변한다는 내용의 특강이 이어졌다. 특강에서는 농업인 학습단체가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농업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개회식에는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모범적으로 활동한 우수회원 26명에 대한 표창과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공로가 많은 공무원 2명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2부 행사에서는 모두가 참여하는 한마음잔치로



임실군 농업인학습단체가 7일 한마음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모범적으로 활동한 우수회원을 선정, 표창과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농사일속에서 틈틈이 연습해온 회원들이 장기자랑을 펼치는 등 회원들 간 친목과 화합을 이루는 시간을 가졌다.

박진두 부군수는 격려사에서 "FTA 체결 등 무한 경쟁시대에 농업 부분의 성장은 둔화되고 고통화,

지출산, 영세한 규모 등으로 농업여건은 더욱 어려워졌다"며 "하지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인학습단체 회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생명산업인 농업·농촌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청 오정란 주무관, 체납징수 사례 최우수상 수상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팀에 근무하는 오정란(사진) 주무관이 2018년 3분기 전라북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틈새공략! 폐교위기에 보물찾기'라는 주제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지난 5일 전북대학교에서 1차 서면심사 결과 우수과제 선정된 6개 시군(전주, 군산, 정읍, 남원, 장수, 부안)의 치열한 사례발표가 있었으며, 남원시청 오정란 주무관의 사례 발표는 단연 돋보였다는 후평이다.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선정은 1차 서면평가(적용가능성, 창의성, 내용충실성, 논리성 등) 4개항목과 2차 발표평가(내용전달성, 청중대응력, 청중관심도, 태도 및 준비 등) 4개 항목으로 구분해 평가 심사한다.

오정란 주무관은 사례 발표에서 폐교위기에 처한 서남학원(서남대학교)의 체납세 징수과정에서 재정기여금중 5,000만원, 익산국토관리청의 손실보상금 1억1,500만원, 법원공탁금 3,600만원 등 총 2억1,100만원을 압류(추심)를 통해 체납지방세를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며, 2016년(1분기)에도 체납지방세 우수사례 발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무주반딧불축제 기간 다문화전통놀이 체험부스 운영

사회복지법인삼동회 무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장진원)에서는 지난 9일까지 반딧불 축제 기간 무주군민과 축제관광객을 대상으로 다문화 전통놀이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전년도부터 다문화이해교육 지역특화교육기관으로 선정돼 넉넉한 사업비를 가지고 다문화 수용성면에 있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반딧불축제에 조그만한 다문화전통놀이 및 의상체험 부스를 운영해 크나큰 다문화 인식개선 효과를 본 바, 올해에도 다문화전통놀이 및 의상체험부스를 전년도보다 더 큰 부스에, 더 색다르고 재미있는 다양한 나라의 전통놀이를 가지고 9월 1일부터 일본의 전통놀이 및 의상체험을 시작으로 첫날에만 500여명의 방문객을 맞이하는 등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아왔다.

부스에서 진행되는 전통놀이는 20여 가지의 전통놀이를 가지고 진행됐다. 올해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재미있고 여름축제에 어울리는 5가지의 전통놀이와 의상을 추가해 식상하지 않은 부스가 운영됐으며 때문인지 부스에 들렀다 가는 대부분의 관람객들의 입가에는 지루함보다는 즐거움 미소가 걸려있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부안 상서면 추석맞이 공동묘지 정비 구슬땀

부안군 상서면사무소는 우리 고유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관내 공동묘지의 벌초작업과 더불어 진입로를 정비하고 잡초를 제거해 공동묘지 주변을 깨끗이 정돈하는 귀성객 맞이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상서면은 관리가 되지 않은 무연고 묘지를 포함했으며 쾌적한 공동묘지의 환경을 만들어 성묘객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했다.

특히 상서면은 해마다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 공동묘지 안팎을 정비하고 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성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정술 상서면장은 "내 조상의 묘를 관리한다는 마음으로 공동묘지 정비작업을 했었다"며 "공동묘지 정비작업을 통해 이웃 간의 끈끈한 정을 나누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 성실히 봉사하고, 주민이 살기 좋은 상서 면을 만들기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 코레일 남원역, 1971년 전라선 열차사고 희생자 추모

코레일 남원관리역(역장 탁거상) 철도원들은 지난 7일 남원시의회 한명숙 의원 등과 노암동에 소재하는 1971년 전라선 열차사고 희생자 묘역에서 묘역 주변정비와 벌초작업을 실시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행사를 가졌다.



노암동 합파우 유원지 내에 위치한 위령탑과 추모 묘역은 1971년 10월 13일 남원에서 군산으로 수학여행을 가다 열차사고로 희생된 남원초등학교 6학년 19명의 학생들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곳으로, 현재는 16기가 남아있으며 희생자들 대부분이 어린 여학생들이어서 그날의 아픔과 슬픔이 컸다고 한다.

한편, 이번 행사를 진행한 남원관리역장은 "남원지역 철도원들이 안타까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 대한 도의를 다하고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코레일 전북본부 김진준 본부장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때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의 넋이 헛되지 않도록 코레일은 열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장수경찰, 총기사고 예방교육 실시

장수경찰서(서장 정재봉) 계북파출소에서는 최근 유해조수 총기 입·출고를 위해 파출소를 방문하는 총기 사용자들에게 총기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과의 고장 정수에서는 지난 여름 폭염과 가뭄을 이겨내고 본격적인 사과 수확을 시작했는데, 과수농가에선 까치·고라니 등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가 늘자 유해조수 구제 총기 사용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한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총기 점검 및 총기사용은 인가나 측사로부터 100미터 이내 사용금지, 총기 소지 및 운반시 격발장치 잠금 등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총기를 출고해주고 있다.

또한 의출시 문단속 철저와 농작물을 건조·보관할 때 마을회관 앞이나 CCTV가 설치된 곳 등 관리가 용이한 장소를 이용토록 당부하는 등 농작물 절도 예방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8년 11월 25일 (월요일)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60912 전주시 영신구 기린대로 222-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회장 김옥길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388-6874	남원지사 632-3386	고창지사 563-698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원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산지사 272-9417	순천지사 256-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84
호산지사 010-6645-9355	광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955	정읍지사 538-3787
	군산지사 010-6789-0389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9157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33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